



[산업]
KT스카이라이프
할인 요금제 출시
결합시 매출 30%↓
06

[라이프]
살인까지 이어지는
데이트폭력
전과 확인 장치 필요
L6



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.

/평양사진공동취재단

관문점의 봄, 가을까지... 11년만에 평양서 남북 '포옹'



- 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으로 향하기 위해 관저를 나서는 중간에 직원들의 환송을 받고 있다.
- ②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서울공항에 도착해 청와대 참모들과 공군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.
- ③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(맨 왼쪽)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
- ④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.
- 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,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환영 나온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.
- ⑥ 문재인 대통령이 순안공항에서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나서 포옹을 하고 있다.
- ⑦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접을 하고 있는 생중계 장면을 서울 동대문구 '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서울프레스센터'에 모인 내외신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다.

/평양사진공동취재단, 연합뉴스

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한 뒤 이동하고 있다.